

토론요지 3

이준석 감사(한국사회적기업실천연구회)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향에 대한 발제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0일 안전행정부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 면,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개략적인 문제점을 제시해 본다면, 주민자치회의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부족.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추천 청탁에 의한 위원 구성 방식. 행정주무관 안건 상정 시 동의하는 식의 운영방식. 다양한 전문가의 구성이 아닌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인식 등 이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행착오적 경험과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하며, 주민자치회가 읍, 면, 동 단위의 지역발전계획에 대표성을 갖고 사전협의할 수 있듯이 시, 군, 구와 시, 도 단위에서도 지역발전계획은 물론 재정문제까지도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갖고 협의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주민자치회가 현실화되려면 우선 세원의 불균형 해소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 주민자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향 모색

우리나라 1997년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고용시장 확충을 일환으로 정부 주도하에 공공근로 사업이 전개되었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기 시작하면서 2007년 7월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개정과 사회적기업육성 시행규칙 및 시행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해결 문제와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확대 방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여 현재 까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운영 실태는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정부지원 기간이 경과되어 국가지원이 중단되자 인건비 지원을 통해 고용했던 노동자들의 해고와 더불어 많은 사회적기업이 사업을 축소 또는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토론자의 소견으로 주민자치회와 연계성을 갖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지속적 성장 가능할 경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

고 사회적 목적을 좀 더 확충하며 주민자치를 통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성공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주민자치를 통한 갈등문제해소 방안

각박한 세태를 반영하듯 아파트 층간 소음이 간혹 극단적 사고로 까지 치닫는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가 있는 곳이라면 국내 어디서나 층간 소음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근 법과 주먹이 아닌 ‘친절한 동민, 다정스런 이웃만들기’ 실천운동을 통해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도 지역별로 생기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7대 대책마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각도로 해결에 나서고자 ‘층간소음전문 컨설팅단’을 뒀 개인 간 분쟁을 제3자적 입장에서 조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유도할 계획이지만 이런 갈등의 시발점을 해소하기위한 노력으로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어 주민화합과 일체감, 동질성을 고려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시너지를 낸다면 층간소음 분쟁으로 최근 일어난 방화와 살인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